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전략

유 학 열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위원
hyyou@cni.re.kr

이 연구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마을)의 고령화, 과소화 및 도시화 등의 영향에 의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이 소멸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재생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CONTENTS

1.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붕괴 위기
2.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정책 수요 분석
3. 국내외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우수 사례 검토
4.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전략과 정책 과제

요 약

-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농촌지역 커뮤니티 기능이 농촌인구 감소라는 양적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과소화라는 질적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농촌마을의 자치 기능, 전통문화 계승 등 농촌마을 고유의 커뮤니티 기능이 저하 또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음
- 충남 농촌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 농촌마을 고유의 기능 저하, 농촌마을을 이끌어 갈 마을활동가(리더) 부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마을 내부 역량부족 및 다양한 외부 주체들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임
- 농촌지역 커뮤니티 재생 관련 국외 우수사례 분석 결과, 농촌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협력의 중요성, 청년 인력의 농촌지역 지원활동 강화 필요성, 관련 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마을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형성이 중요한 요소로 도출됨
- 본 연구에서는 충남 농촌지역(마을)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4대전략으로 ① 농촌마을 자치기능 강화, ② 외부 주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③ 농촌마을 내 사회적자본 형성 지원, ④ 고령자 삶의 질 서비스 지원 강화를 제시함
- 세부 정책과제로 충남 농촌마을 자치기능 재생지원단, 충남 농촌마을 재생 프로젝트 공모전, 충남 도농간 인적 네트워크 연계 플랫폼 구축, 충남 마을학(學)프로젝트 및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체육환경 조성 등을 제안함

01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붕괴 위기

- 농촌지역의 고령화, 과소화에 따른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상실 우려
 - 과거 수 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농촌지역의 고령화, 과소화,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자치 기능, 공동체 기능, 생태환경 보전 기능, 전통문화 계승 기능 등 농촌마을 고유의 기능들이 저하 또는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음
 - 이렇듯 과소화, 고령화에 따른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커뮤니티 기능 저하 또는 소멸에 의해 농촌다움(Rurality)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농촌지역 인구 구조의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 동시 발생
 - 농촌지역의 고령화, 과소화 문제는 단순히 절대 인구가 감소한다는 양적 문제도 있지만, 지역 내 젊은 층 인구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질적 문제가 더욱 심각함
 - 농촌지역 인구 구조의 양적, 질적 문제는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저하, 농촌농업자원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농촌마을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 농촌마을 본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
 - 정주환경 개선, 생활기반 구축 등 하드웨어적 지원 위주의 기존 농촌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마을 고유의 기능과 농촌다움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함
 - 또한 농촌마을 기능을 보전, 관리,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함

1.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정책 수요조사 개요

- 마을활동가,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법 (FGI: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목적: 충청남도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농촌마을 재생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과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함
 - 1차 조사: 2020년 6월 12일, 7명 참석
 - 2차 조사: 2020년 6월 22일, 6명 참석
- 마을주민, 마을리더, 마을활동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목적: 충청남도 농촌마을 재생 관련 의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함
 - 내용: 농촌마을과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실태, 농촌마을과 교류하고 있는 외부 주체들의 유형, 외부 주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필요성, 외부 주체들과의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수요 등
 - 시기: 2020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 규모: 유효 응답수 69명

2. 표적집단면접법 결과 주요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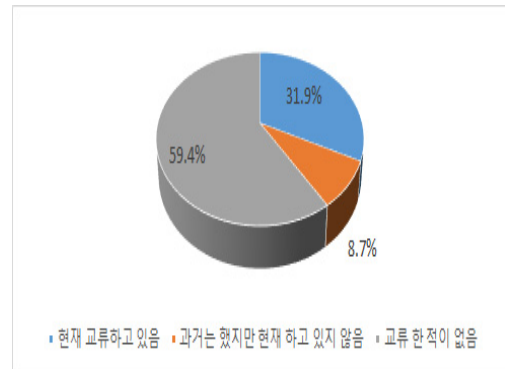
- 충청남도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도출
 - 농촌마을 고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거나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
 - 농촌마을을 건전하게 이끌어 갈 리더(마을활동가)층이 두텁지 못하다는 점
 - 급변하는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촌마을 내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 다양한 외부 주체들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
-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농촌마을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의식 회복과 주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필요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역량 강화 지원 필요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농촌지역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양적·질적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
 - 다양한 외부 주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협력 활동 지원 필요
 - 마을 주민들 간의 교류 확대, 신뢰감 회복 등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형성 필요

3.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요약

- 충남 농촌마을과 외부 주체들과의 정기적 교류 실태
 - 충남 농촌마을이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가운데 59.4%가 ‘과거든 현재든 교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1.9%만이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응답함
 - 약 60%의 마을은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충남 농촌마을과 연계·협력하는 외부 기관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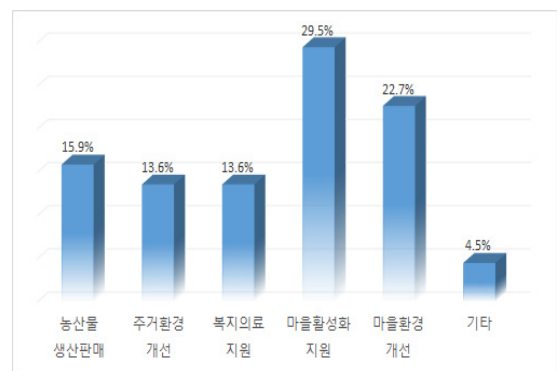
- 교류를 하고 있는 외부 주체로는 도청, 시군청 등 공공기관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단체 25.6%, 교육연구기관 17.9%, 민간기업 15.4%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 농촌마을을 지원하는 외부 기관으로 공공기관, 시민단체의 비중이 높으며 민간기업 등 민간영역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그림 1]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 실태

- 충남 농촌마을과 외부 주체들과의 연계 활동 유형

-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 활동으로 가장 많은 것은 마을개발(발전) 관련 계획수립 및 자문 등을 지원 받는 것이며, 그 외 마을환경 개선 활동, 농산물 생산 판매 지원 활동 순으로 나타남
- 어느 특정된 활동에 편중되지 않고 농촌마을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 외부 주체들과의 연계 활동 유형

- 향후 농촌마을과 외부 기관과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향후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7.4%가 '매우 필요하다', 30.4%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 필요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외부 주체들로부터 지원 받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는 마을발전 관련 지원, 주민복지 및 의료지원 활동, 농산물 생산 판매 활동, 주거환경 개선 활동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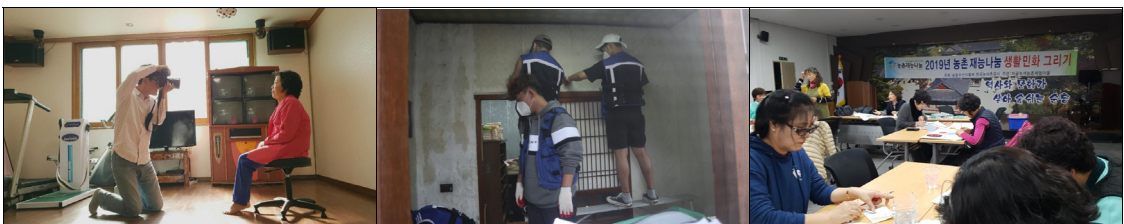
03

국내외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우수 사례 검토

1. 국내 사례

- 농촌재능나눔사업(농림축산식품부)

- 2011년부터 시행된 농촌재능나눔사업(일명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하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농촌지역에 재능을 나누는 사업임
- 즉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식으로 농촌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 농촌 재능나눔 분야는 풍성한 마을(농업지원), 행복한 마을(생활, 복지), 배우는 마을(교육, 지도), 즐거운 마을(문화, 여가), 희망찬 마을(마을발전), 건강한 마을(의료, 보건)로 구분됨



농촌재능나눔사업 활동 사례

*출처: 농촌재능나눔(www.smlbank.kr)

- 농촌사회공헌인증제(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업과 단체의 농촌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농촌사회 공헌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 농촌사회공헌인증 대상은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일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임
- 인증 받은 기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금리우대,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적격 심사 시 가점부여 등이 있음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임
- 이 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3가지로 구분
- 특히 ‘지역정착지원형’은 청년이 농촌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의 법인 및 단체에 근무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임

[표 1] 2020년 충청남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중 마을연계사업 현황

시군명	사업명	사업내용
충남도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인건비, 교통비, 교육지원, 자기계발 지원
보령시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인건비, 교통비, 교육 지원
금산군	인삼약초분야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
서천군	사회적경제기업 및 농어업법인 전문인력지원사업	인건비, 교육 지원
청양군	청양마을로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교육 지원
예산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지원	인건비, 자격 등 취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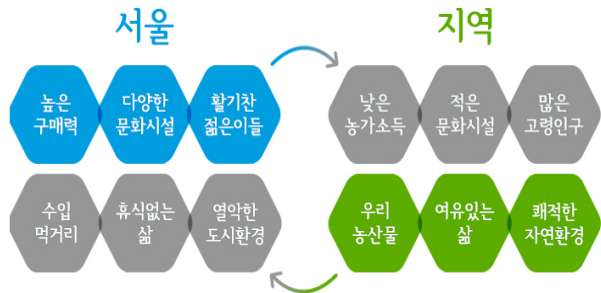
자료 : 충남도청

● 지역상생사업(서울특별시)

- 서울시에서는 서울과 농촌지역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과 상생’을 통한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구매력, 다수의 젊은 층, 문화시설 등의 장점과 수입 먹거리, 휴양 없는 삶, 열악한 도시환경 등의 단점을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쾌적한

자연환경, 여유 있는 삶을 통해 해결하고
동시에 농촌의 낮은 농가소득, 문화시설
의 부족, 고령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 세부사업은 먹거리상생, 문화상생, 자원
상생, 일자리상생사업이 있음



[그림 3] 서울시 지역상생사업 개념도

•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전라북도)

- 전라북도가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며,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을 농촌 현장에 파견, 지역에 정착하게 만든다는 목적임
- 인력을 과소화 지역에 파견하고 그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견된 인력은 농촌에 정착하여 주민들과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함
- 농촌과소화 대응인력은 '읍면형'과 '마을형'으로 구분함. '읍면형'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단이 구성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각종 사업을 기획 추진하며, '마을형'은 마을 활성화를 위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마을도 내일로(전라남도)

- '마을로 내일로'는 2017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8 ~ 39세의 청년들이 전남지역의 마을사업장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 기업에 취직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프로젝트는 '마을로'와 '내일로'로 구분되는데 '마을로' 프로젝트는 마을단위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며, '내일로' 프로젝트는 민간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역량교육을 통해 청년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 각 프로젝트에 배치되는 청년들은 '청년활동가'로 위촉, 전남도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됨

• 도시청년시골파견제(경상북도)

-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과 이로 인한 농촌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인구의 농촌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2017년부터 시행한 사업임
- 모집분야는 ① 지역자원과 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 상품, 기념품 개발·판매, ②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문화예술 창작 활동, 전사·체험공간, ③ 음식점(일반창업), ④ 기타 지역활성화를 위한 분야로 총 4가지로 구분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업에 대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출신지역 및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내용은 1인당 30백만 원으로 정착활동비와 사업화자금이 이에 포함됨.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정착을 위한 별도의 역량강화와 컨설팅이 지원됨

[표 2] 영덕군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정착현황

업체명	내역사업	업체 특징
달포고깃간	○ 달포고깃간	○ 과거 타 시도에서 고깃집(식당) 운영경험 ○ 영덕대게(홍게)/사과/배 활용 신규 먹거리 메뉴 개발
블루비	○ 드론체험관 ○ 복합문화공간 활용	○ 팀원 전체 드론 전문가로 구성 ○ 삼사해상공원 내 기존 헬기격납고 리모델링
번영 커피앤스프	○ 영덕 송이 천연비주 공방카페	○ 디자이너 출신 대표로 전체 인테리어 시행 ○ 지역 특산물 송이 활용 사업시행

자료 : 경상도시청년시골파견제 (<http://gbstay.gepa.kr>)

2. 국외 사례

- 영국 농촌공헌 프로그램 RAP(Rural Action Program)¹⁾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인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에서 2001년부터 농촌공헌프로그램 RAP(Rural Action Program)를 추진 중인데, 이 프로그램이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기업 기금과 재원으로 농촌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사업임
- 기업과 농촌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해 농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지역거점 개발, 인프라 구축, 농산물 구매, 농촌기업에 대한 경영 노하우 전달 등이 기업의 주된 지원내용임
- 영국 농촌공헌 6대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 영국 RAP의 6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The Pub is th Hub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내 선술집을 리모델링하여 양조장-주류업체-지주-지역사회 연결
Pro-Help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상으로 전문적 컨설팅 제공
Market Town	기업과 마켓타운(농촌중심지)의 연결로 유동인구 증가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
Seeing is Believing	기업 임직원들이 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개선책 제공
Plough to Plate	식품에 대한 불신 해소와 선진적인 유통질서 확립으로 농가와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 증대 기대
Healthy School Meals	학교급식의 유기농화 및 인근지역 유기농 농산물 활용으로 도농 간 교류 확대

- 프랑스 AMAP(Association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²⁾

- 2001년도에 프랑스 남부에 처음 만들어진 AMAP는 '농민과 농업을 지키는 연대'를 뜻하는 명칭의 약자로서, 농업위기에 직면하여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농민과 유기농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 AMAP의 원칙은 농민과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인데, 소비자 그룹과 한 명의 생산자 결합으로 시작됨. 소비자 그룹과 생산자는 계절에 따라

1) 민승규 외(2007), 성주인 외(2016), The prince's country side fund 홈페이지를 참고

2) reseau-amap 홈페이지, 엄형식·마상진(2010), 하석건(2018) 등을 참고

생산할 식품(과일, 야채, 달걀, 치즈 등) 종류와 양을 함께 결정하고, 주로 연간 2회로 계약을 맺으며 계절에 따라 생산된 식품 꾸러미(basket)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며, 배달은 소비자들이 농장으로 직접 오거나, 시내에 특정 지점으로 가져다 놓으면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방식임

- 또한 AMAP 소비자 회원은 생산자가 일손이 모자랄 때 함께 일하는 방식을 취한다. 생산자는 부족한 농업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소비자는 농사일을 가까이 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어 농촌의 생산자와 인근 도시의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임

• EU 농촌 애니메이터(rural animator)

- EU에서는 ‘농촌 애니메이터’ 라는 새로운 직업을 농촌지역에 확립하기 위해 2009년에 ‘농촌 애니메이터를 위한 유럽 석사프로그램(European Masters Programme For Rural Animators: 이하 EMRA)을 도입함
-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잠재적 농촌 애니메이터에게 농촌 개발(진흥)에 관한 폭 넓은 지식과 이해력 심어 주고, 농촌 개발 추진 상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실천적 기술(기법)을 제공함에 있음. 둘째, 농촌 애니메이터가 공식 직업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며, 셋째는 농촌 애니메이터를 통해 농촌 개발(진흥)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데 있음

[표 4] EMRA 프로그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core course	농촌개발의 이론 농촌지역 연구의 방법론 농촌 애니메이터의 역할
전문 모듈 course	지속가능한 농업 인간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환경계획과 관리 지속가능한 농촌과 농촌관광 농촌경제의 다각화(6차산업) 교육과 농촌진흥

- 농촌 애니메이터의 역할은 첫째, 지역경제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 주도하면서 사회적 연대강화, 농촌 정체성 재생 활동. 둘째, 지역주민의 정책 수요에 맞는 상향식 개발을 주도. 셋째,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재생 프로그램을 실시. 넷째, 지역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능력 배양을 위한 조연자 역할을 하는 것임

- 일본 집락지원원

- 일본 총무성에서는 2018년부터 농촌지역(마을)주민들이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마을 주민 스스로가 '우리(우리 마을)의 문제' 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농촌마을에 도움을 줄 인재를 지원(파견)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집락지원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 집락지원원의 주요 역할은 크게 '마을 점검 활동' 과 '마을 현황과 실태를 마을주민에게 공유해주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마을 점검 활동'의 목적은 마을주민 자신이 마을이 처해 있는 현실(실태)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위해 집락지원원은 마을주민의 생활서비스 실태, 보건의료서비스 실태, 마을 내 자연환경 보존 실태, 공공시설 관리 실태, 마을 내 유무형의 자원 보존 실태를 파악, 정리하는 활동을 함
- '마을 점검 활동' 방법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동행하면서 마을 내를 순회 관찰하는 활동과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한편 '마을 현황의 마을주민 공유 활동'은 상기의 '마을 점검 활동' 결과를 마을 주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인지시켜 주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임
- 집락지원원을 채용하는 지자체에 1인당 연간 350만 엔(상한)의 특별교부금(보조금)을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음. 350만 엔에는 집락지원원 급여와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을 내 자치회장(이장)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40만 엔(상한)을 지원해 주고 있음

-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함에 따라 침체된 농촌지역 사회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에 있음. 이에 총무성은 각 지자체가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음³⁾
- 지역부흥협력대로 선정된 대원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주로 '지역협력 활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협력 활동'이란 농촌지역(마을) 공동체 유지, 농업과 농업과 관련된 경제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활동을 의미하며, 구체적 활동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다. 협력대원의 실제 수행하는 직무는 대원이 활동하는 지역 또는 마을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면서 상호간(지자체와 대원)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됨

3) 이근우(2019),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자체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897

3. 국외 사례 시사점

- 민간영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협력

- 유럽과 일본의 경우 농촌지역 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해 외부 주체들과의 연계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사례도 적지 않음. 특히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의 연계협력보다는 민간기업, NPO(또는 NGO)조직 등 민간영역의 주체들에 의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민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청년 인력의 농촌지역 지원활동 강화

- 젊은 청년층의 농촌지역 지원활동의 우수 사례는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와 집락지원원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음. 이 제도는 단순히 농촌지역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정책 수단이 아닌, 농촌지역을 위해 도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청년들에게 기존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6차산업, 사회적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업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참고할 만함

- 관련 인력의 체계적 육성

- 농촌지역(마을)을 재생 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 주체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외부 주체들 또한 농촌재생 관련 정보와 지식 등이 요구됨. 단순한 일손 돕기 등 일회성 자원 봉사 수준에서 벗어나 6차산업, 농촌관광, 농업경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의 육성이 필요한데,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애니메이터’ 제도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관련 전문대학 강좌 개설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 마을 주민들 간의 교류와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사회적자본’ 형성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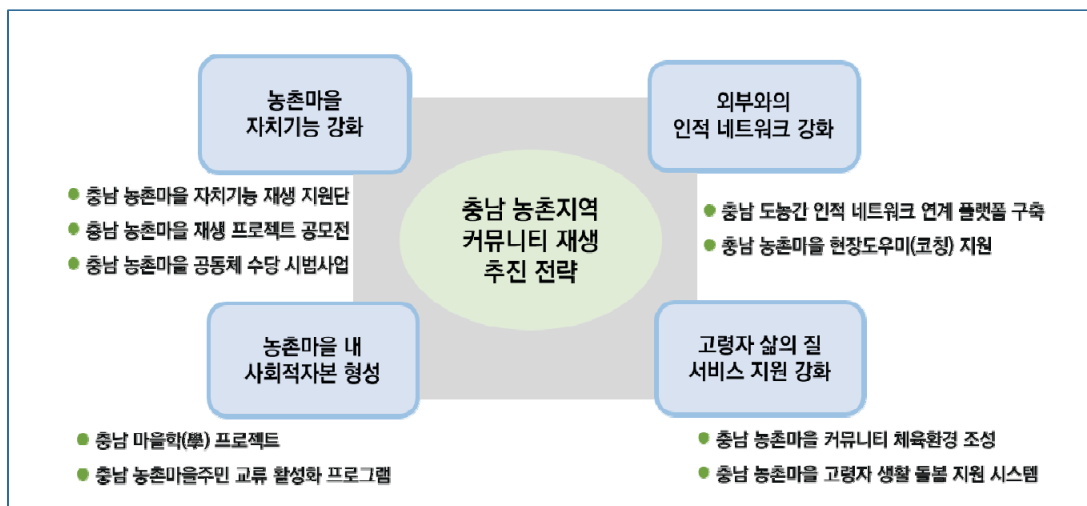
- 침체되어 있는 농촌마을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주민들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자구책이 필요함. 즉 농촌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내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것이 농촌마을 재생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일본 집락지원원 제도는 마을 재생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04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전략과 정책 과제

1.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4대 전략

- 충남 농촌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정책 수요 분석과 국내외 농촌지역 재생 관련 우수 정책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인구감소시대의 충남 농촌지역 커뮤니티 재생 전략을 제시함
 - 농촌마을 자치기능 강화
 - 외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 농촌마을 내 사회적자본 형성
 - 고령자 삶의 질 서비스 지원 강화



[그림 4]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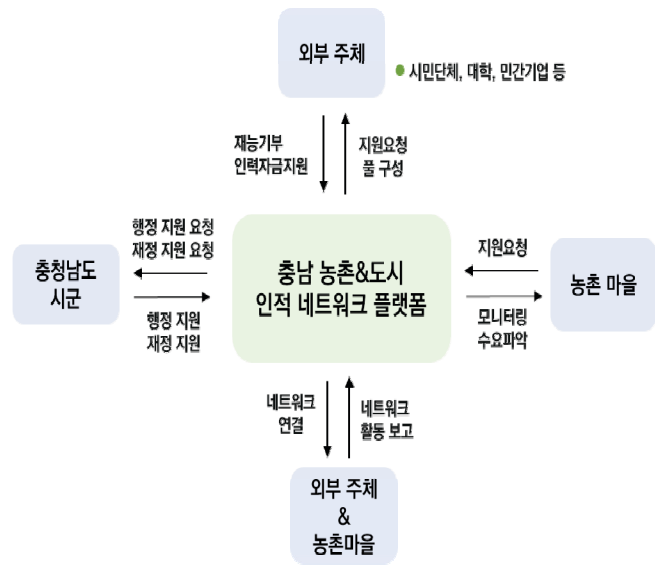
2.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정책 과제⁴⁾

- 농촌마을 자치기능 재생 지원단(이하, '자치기능 재생 지원단')
 - '자치기능 재생 지원단'에서는 농촌지역 마을주민들 힘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마을공동체(사회적 조직) 재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 지원활동의 예로서는 마을 연간 활동계획 수립과 회계 지원, 마을 규약 정비, 마을 내 사회적 조직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지원활동을 통해 마을 총회, 노인회, 부녀회 등 사회적 조직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마을 자치기능 재생은 물론 한계마을로의 진행을 막거나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자치기능 재생 지원단' 추진은 충청남도 또는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되, 농촌지역 개발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에 참여경험이 있는 민간 컨설팅회사, 대학, 공공연구소, 학회 등이 신청 가능함. '자치기능 재생 지원단' 사업의 추진 절차는 ① 지원단 파견을 희망하는 농촌마을을 수요 조사, ② 지원단 공개 모집, ③ 지원단 선정(서류심사 + 발표심사), ④ 지원단 해당 마을에 파견, 지원 활동 실시, ⑤ 지원단 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순임
- 농촌마을 재생 프로젝트 공모전(이하, '재생 프로젝트 공모전')
 - '재생 프로젝트 공모전'은 농촌마을과 충남지역 대학생(대학원생)간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촌마을을 자치기능 향상과 더불어 지역 대학생들에게 농촌지역에서 본인들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재생 프로젝트 공모전'은 농촌일손 돕기와 같은 단순하고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저하되어 있는 농촌마을 자치기능을 회복 시켜 나가는 전략을 스스로 구상하고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것임
 - '재생 프로젝트 공모전'은 공모 방식을 통해 실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자치기능 회복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활동계획을 제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프로젝트팀을 선정함.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완료 후 성과발표회를 해당 마을주민들과 함께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충남 도농간 인적 네트워크 연계 플랫폼 구축(이하,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은 농촌마을 자치운영, 마을개발사업, 마을행사 등 농촌마을에서

4) 앞의 그림 4에서 제시한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전략과제 가운데 일부 내용은 생략함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외부 주체들과 연계하여 해결·지원해 주는 시스템임.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의 역할은 농촌마을 또는 농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 파악, 외부 주체들의 지원 가능한 공급 파악, 도시-농촌 간의 수요-공급을 매개하는 것임(그림 5 참고)

-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은 충남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시군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봄



[그림 5] 충남 인적네트워크 플랫폼 구상도

● 충남 마을학(學) 프로젝트

- '충남 마을학(學) 프로젝트' 사업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기존의 '마을자원 찾기', '마을진단 지도 그리기' 등의 수법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알아가는 수법임⁵⁾. '충남 마을학(學) 프로젝트'는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주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마을에 존재하는 자연, 풍토, 문화 등을 조사, 분석한 후에 마을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자기마을만의 생활(문화)을 만들어 가는 과정임
- 즉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자원들을 조사하면서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지혜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전과는 다른 보다 고차원적인 주민참여 방식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충남 마을학(學) 프로젝트'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는 물론 자기마을에 대한 소중함과 애착심을 심어 줄 수 있기에 '사회적자본' 형성에 가장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충남 마을학(學) 프로젝트'는 농촌마을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자원, 농업자원, 문화자원 등 예부터 전승되어 온 소중한 지역자원들을 발굴하고 보존, 보전, 계승하는 것으로 일명 '농촌마을 자원 아카이빙' 구축 방안과 함께 검토해 필요가 있음

5) 마을학 관련 실천 사례는 부산연구원의 마을학 포럼, 성북구 마을학개론 교육 등이 있음

-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체육환경 조성⁶⁾(이하, ‘커뮤니티 체육환경 조성’)

- ‘커뮤니티 체육환경 조성’은 우선 기존에 설치 또는 조성되어 있는 농촌마을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실시하여, 기존 시설들이 고령자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위치, 적절한 기구들로 설치되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에 효과가 큰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요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함
- 이러한 물리적인 체육환경 조성과 더불어 ‘농촌마을 커뮤니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사업은 충청남도 체육회 및 시군 체육회와 협력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하고, 고령자 생활체육 관련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촌마을에 원활한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체육계열이 있는 지역대학과 MOU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 또는 현장실습과정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6)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김민준 박사 자문을 받아 작성함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20년도 전략과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농촌지역정책 구상’ 일부 내용을 재구성 또는 수정한 것임

유 학 열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위원
041-840-1201, hyyou@cni.re.kr

참고자료

- 민승규. 2007. 농촌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성주인. 2016.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학열·이도경. 2017.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연구. 충남연구원.
- 엄형식·마상진. 2010. 유럽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현진·공석기. 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진인진.
- 하석건. 2018. 세계의 공유농업: 프랑스 편(1).